

세계를 향한 광주의 '보은'

19일 '미얀마의 날'...탄압 알리고 모금 활동

광주가 군부독재의 탄압에 억눌린 미얀마의 '눈물'을 닦는데 눈길을 돌렸다. 광주 민중항쟁 27주년을 맞아 80년 5·18 때 외국에 진 '빛'을 갖는 국제연대에 나선 것이다.

1980년 5월, 계엄군에게 짓밟힌 광주는 슬픔과 공포로 가득했다. 그 누구도 위로의 손길을 쉽게 내밀지 못했다. 광주는 고립된 채 긴 시간 동안 스스로 상처를 치유해야 했다.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Juergen Hinzpeter)는 신군부의 강력한 언론통제 속에 합평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처음으로 세계에 알렸다. 미국인 아놀드 피터슨(Arnold A Peterson) 목사는 미 공군이 광주 거주 미국 민간인들을 광주비행장에서 의외로 실어 나를 때 이를 거부하고 학살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증언한 '외국인 증인'이 됐다.

'아르헨티나 오일광장 어머니회'

(Madres del Plaza de Mayo)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및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회'에 참여, 지식 있는 어머니의 슬픔을 함께 나눴다. 그들은 5·18의 아픔을 함께했으며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았다.

그 '빛'을 갖기 위해 '5·18민중항쟁 27주년 기념행사위원회'(상임위원장 이홍길)와 '광주국제교류센터'(대표 윤장현)가 오는 1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서 '미얀마를 기억하는 날' 행사를 갖는다. 미얀마의 인권 탄압에 대해 5월을 경험한 광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내에선 처음으로 미얀마 돕기 모금 활동도 펼친다.

모금 소식이 알려지자 15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영어강사 등이 300만원을 보내왔으며, 행사 당일 900만원을 모은다는 목표다. 평동 광산과

하남 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 출신 근로자 71명도 행사에 참여해 모금 활동을 돕는다. 성금은 6천992명의 학생이 무료교육을 받고 있는 미얀마 만달레이 지방에 있는 '파웅다우 모나스틱' 학교(10년제)에 보내게 된다.

현재 난민으로 받아들여져 한국에 머물고 있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회원들도 광주에 초대돼 미얀마의 인권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국제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내용의 서명을 받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미얀마는 1947년 독립운동지도자 아웅산 장군 등 지도자 8명이 암살당했다. 지난 1962년부터 군사 독재의 길을 걷게 되면서 1988년 이후에만 민주항쟁 과정에 3천여 명이 숨졌다. 몬(Mon) 지역에서는 아직도 군인들의 성폭력 만행이 잇따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재난 대비 훈련

15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삼성 광주전자'에서 실시된 '지진 재난대응 통합 현장훈련'인 방위대원 등 300여 명이 공장 내 복자관 건물 일부가 붕괴, 대형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해 대피·구조·진화 작업을 벌였다.

부실 복무 가수 등 19명 '편입 취소' 통보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희재 부장검사)는 15일 병역특례자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특례업체 중 5곳을 확인, 1사 대

표 안모(40)씨 등 업체 관계자 4명과 아들의 채용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건넨 부모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유명 댄스그룹 출신의 가

수 K씨와 L씨 등을 위장 편입시킨 혐의로 현재 중국으로 도피중인 M사의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에서 부실하게 근무한 연예인 K씨와 L씨, 실업축구팀 축구선수 등 특례자 19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27년만에 말문 연 5·18 당시 상무대 군종 장용복 신부

“같은 학생·시민에 가족소식 몰래 전해”

“가족들이 건네준 메모지를 성경책 속에 넣어 상무대 영창에 갇혀 있던 학생·시민들에게 몰래 전달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부대 내에선 미사나 고해성사(告解聖事)를 할 수가 없었고, 간신히 성체(聖體)를 모시는 것만 허용됐죠. 성체함을 들고 영창으로 가는 나이에 나이 어린 군인들이 ‘이봐’라고 반말을 하며 ‘혹시 녹음이 아니냐?’며 검문을 할 때마다 메모지를 들켜봐야 마음을 졸였습시다.”

80년 5월 당시 상무대 군종신부였던 장용복(64) 신부(광주대교구 관리국장)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1971년 신부 서품을 받은 뒤 1978년부터 상무대에서 사목 활동을 하며 80년 5월을 생생히 지켜봤다.

“상무대에 있던 군인들도 처음에는 진압군인 공수부대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시민군에 간첩이 섞여 있다’ ‘시민군이 군인 가족 아파트를 공격한다’는 유언비어가 부대 안에 나돌기 시작하면서 상무대 군인들의 마음이 돌아섰습시다.”

그는 계엄군 관계자가 군 부대의 입장을 시민에게 전하는 중



검문 피해 성경책에 메모지 숨겨

‘시민 회유’ 軍 요청 단호히 거부

“이젠 책임있는 사람들 입 열어야”

역할을 요청하며 수차례 회유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곳 광주·전남에서 뼈를 묻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며 단번에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5월 말 목포 북교동 성당에서 열린 5·18 희생자들을 위한 추

모 미사'를 회상하면서 “군에서는 당초 신부는 물론 미사 참여자 중 중추적 역할을 한 신자도 구속할 방침이었지만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이를 막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간신히 열린 추모 미사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이 나와 군에서 전원 구속 운운하며 한바탕 난리가 났습시다. 그때 ‘사형수가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거나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민주화를 외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며 겨우 군 관계자를 달랬습시다.”

장 신부는 그러나 “추모 미사에 참석한 동료 신부들이 나를 보자마자 대화를 중단하며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대했을 때 정말 서글펐었다”며 “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5·18이 잘 수습되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신부이면서도 군인이었기에 오해를 받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장 신부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제라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사진=니명주기자 mjna@

니원침 (7210) 김종두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 본사: 062(514-3002) ☎ 공판: 061(32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 본사: 062(525-9002) ☎ 전주점: 063(271-5051)

동생은 '흔치고' 형은 '내다팔고'

○차량에서 네비게이션을 훔쳐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팔려던 고종사촌 형제가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4·수원시 장안동)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G 박차점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던 네비게이션을 훔치는 등 지금껏 11차례에 걸쳐 500만원 어치의 네비게이션을 훔쳤다는 것.

○이씨의 고종사촌형 안모(26·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는 동생이 훔친 네비게이션을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팔려고 한 혐의.

○경찰청은 개당 40만원이 넘는 네비게이션을 팔만 가격인 20만원에 내놓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이들을 붙잡았는데, 동생은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고 광주까지 장물을 가지고 온 형은 불구속.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18 행사때 反FTA 시위 경찰 경호·경비업무 비상

5·18 민중항쟁 27주년 기념식 행사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가 예정돼 있어 경찰의 경호·경비 업무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기념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대선주자 등까지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 경찰은 인경호와 기념식장 인근 경비 업무를 짜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미 FTA 반대 광주·전남운동본부(공동대표 하연)와 '광주·전남 농축산 FTA 비상대책위원회'(대표 배삼태)가 오는 18일 오전 9시에 5·18 구묘역 일대에서 1천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적인 5·18 기념행사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어 오전 10시30분께 5·18 민중항쟁 27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노무현 이만 기념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대선주자 등까지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 경찰은 인경호와 기념식장 인근 경비 업무를 짜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의 전경 40여 개 중대를 지원받아 기념식 당일 경찰 60여 개 중대 6천여 명을 배치해 각종 불법 시위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소설 '흔불' 배경 종갓집 불

15일 새벽 1시12분께 전북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사령(朔寧)에서 화재가 발생해 5층 건물 1층이 타면서 무너져 2천9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사령 최씨 종갓집은 조선시대 남원 지역 양반가의 몰락 과정과 3대째 종가를 지켜온 며느리의 애환을 그린 작가 고(故) 최명희의 대하소설 '흔불'의 배경이 된 곳이다.

명품신도시의 중점특권을 누리는 3,813 평대단지!

▶ 명품정원 · 호수공원 정의 최고 단지!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9000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주)조이트래블

www.joy-travel.net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57번지 2F

대표전화 (062) 234-3222

기억에 오래도록 간직될 가슴 설레이는 여행...

매년 1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조이트래블을 통해 여행을 다녀오십니다.

해외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업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중국1-전세기상품

패키지1 (광주 출발)

[실속] 상해/소주/항주 MU 4일

▶ 5월 31일 ~ 7월 21일

329,000

패키지2 (광주 출발)

고구려 문화 유적지 탐방 CZ 4일

▶ 매주 금요일 출발

569,000

패키지3 (광주 출발)

백두산/심양 699,000

▶ 매주 금요일 출발

패키지4 (광주 출발)

북경/백두산/심양 839,000

▶ 매주 월요일 출발

※ 공동 발표사항
- 비자발급비(8,000), 카이로 및 기시 팀 (1박당 10,000) 별도

중국2-대한항공상품

패키지1 (광주 출발)

상해/소주/항주/주거각 KE 4일

▶ 5월 13, 20일 / 6월 3, 10일

399,000

패키지2 (광주 출발)

상해/항주/장가계(원가계) KE 5일

▶ 5월 19, 26일

859,000

패키지3 (광주 출발)

상해/항주/장가계(원가계) KE 5일

▶ 6월 2, 9, 16, 23일 / 7월 7일

789,000

패키지4 (광주 출발)

상해/항주/황산 KE 4일

▶ 6월 13, 20일 / 4, 11일

649,000

패키지5 (광주 출발)

상해/황산/항주/주거각 KE 5일

▶ 6월 2, 9, 16, 23일 / 7월 7일

625,000

※ 공동 발표사항
- 비자발급비(8,000), 카이로 및 기시 팀 (1박당 10,000) 별도

유럽

광주 MBC 문화방송 1

[실속] 백조의 성과 오프라우 LH 12일

▶ 6월 29일

3,090,000

광주 MBC 문화방송 2

[폭력] 오프라우와 베니사 운하 LH 10일

▶ 6월 22일

3,690,000

광주 MBC 문화방송 3

[폭력] 동유럽 주류시미즈, 직센스위스 LH 9일

▶ 6월 21일

2,790,000

광주 MBC 문화방송 4

[폭력] 트로이와 터키 일주 KE 9일

▶ 6월 19일

2,490,000

추천상품 (광주 출발)

서유럽+동유럽 5개국 JL 16일

3,390,000

▶ 6월 26일

- 전일정 노팅 / 노음션

독일 · 스위스 · 이탈리아 · 오스트리아 · 체코

일본

추천상품 1 (광주 출발)

오감만족! 국내 최저가 일본 류슈 온천 4일

279,000

▶ 출발일: 6월 3, 8, 20일 / 7월 1, 3, 8일

▶ 숙박: 아미야미 통나무 콘도

▶ 전일정 노팅/노음션 / 광주 출 · 도착 기준

▶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 2 (광주 출발)

통나무 콘도와 일본 전통 온천호텔과의 만남 4일

299,000

▶ 출발일: 6월 1, 7일 / 7월 13일

▶ 숙박: 빌라형 통나무 콘도+벚꽃전통온천호텔

▶ 노음션 / 광주 출 · 도착 기준 / 가이드 팀 별도

▶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 3 (광주 출발)

일본 전통 온천호텔을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 4일

399,000

▶ 출발일: 6월 27일 / 7월 18, 21, 29일

▶ 숙박: 온천호텔 또는 특급호텔

▶ 전일정 노팅/노음션 / 광주 출 · 도착 기준

▶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 4 (광주 출발)

항공+호텔호텔 오사카/나라/교토 KE 4일

699,000

▶ 출발일: 6월 14일

▶ 숙박: 전일정 특급호텔

▶ 상품 특 전: 유료 관광지 다수 입장 / 노팅, 노음션

▶ 전일정 차별화된 식사 및 숙박

▶ 부산출발(국내 수송 별도, 15인 이상 전용 차량 운행)

광주 MBC 문화방송

세계 2대 대륙 횡단기 여행

HAINAN

광주 ~ 하이난(삼아) 직항

가족여행/광프여행/오다이즌 플드 리조트

구분	상품명	출발일	상품가
관광	하이난 관광 4일 NO TIP !!	7/25, 8/1, 8/8	690,000
	하이난 관광 5일 NO TIP !!	7/21, 7/28, 8/4	790,000
골프	하이난 골프 4일	7/25, 8/1, 8/8	790,000
	하이난 골프 5일	7/21, 7/28, 8/4	890,000
호리이즌 플드 리조트 (자유여행)	골드리조트(씨뷰) 4일 NO TIP & NO SHOPPING	7/25, 8/1, 8/8	1,050,000
	골드리조트(씨뷰) 5일 NO TIP & NO SHOPPING	7/21, 7/28, 8/4	1,200,000
		8/11	1,250,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5인원 미만보통여행 기안 / 여행객세 기안업체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지차

◆ 공동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차비(기내비)외항1억원, 국내항공5천만원, 관광진흥법제정, 관광 및 부수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경비: 없음 (개개인인, 선배관,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출발인원 15명 이상

◆ 상가계약은 환불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여행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